

자색 옷을 입은 부자는 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지 못하였는가

— 누가복음 16:19-31에 대한 사회·정치·경제·문화적 해석 —

류호성*

1. 문제 제기

누가복음 16:19-31에 등장하는 이름 없는 부자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 이유에 대한 학자들의 일반적인 견해는 “부자가 돈을 숭배해서 가난한 자들을 돌보라는 모세나 예언자들의 가르침(참고, 신 24:10-22)을 따르지 않고, 매일 자신의 향락을 위해서 재물을 사용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런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 비유를 이해하는 것도 타당성은 있다.¹⁾

그 이유로는 첫째, 누가복음 16:1-13은 청지기의 재물 관리에 대한 문제이고, 14절은 앞선 비유에 대해서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의 반응이고, 15절은 이런 바리새인들의 반응에 대한 예수의 평가다. 이렇게 재물에 대한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16:19에 자색 옷을 입은 부자가 등장하니, 16장 전체를 재물의 문제로 이해하는 데에 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둘째, 학자들은 누가가 ‘부와 가난’이라는 주제를 강조한다고 말한다.²⁾ 누가는 자신들의 공동체에 있는 ‘부와 가난한 자’를 통합하려고, 부자들에게 종말론적 윤리를 제시한다는 것이다. 곧 재물을 바르게 사용하지 않으면 죽은 다음에 음부에 가기에, 부자들에게 올바른 재물 사용을 권고하려는 목적에서 누가가 이 비유를 보도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학자들의 견해가 “자색 옷을 입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 Ruprecht-Karls-Universität Heidelberg에서 신약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음. 현재 서울장신대학교 신약학 조교수. ryuheidel@hanmail.net.

1) 참조, 김창락, 『귀로 보는 비유의 세계』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7), 248-254; 오덕호, 『하나님이나 돈이나? - 누가복음 16장의 문학·역사비평적 연구』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8), 235-318; John R. Donahue, 『어떻게 비유를 해석할 것인가?』, 박노식 역 (용인: 강남대학교 출판부, 2007), 234-244.

2) 이에 대해서는 Gerd Theißen, 『복음서의 교회정치학』, 류호성 공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2), 147-155 참조.

경제적인 틀에서만 이해하도록 하는 편협함을 초래하였다. 이런 해석들은 다음의 상황들을 고려하지 않았다.

첫째, 누가복음 16:19-31의 비유나 누가복음의 ‘부와 가난’이라는 주제를 경제적 측면에서만 이해하는 것은, 예수 당시 팔레스틴의 세계를 너무 협소하게 이해한 것이다. 고대 지중해 사회나 예수 당시 팔레스틴의 사회에서 ‘부자’는 오늘날의 관점에서 단순히 돈만 많은 사람이 아니라, 극소수의 정치권력을 갖고 있는 최상류층의 사람들이다. 고대 사회는 오늘날의 사회보다 사회-정치-경제 구조가 더욱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었다. 곧 예수 당시의 세상에서 ‘부’는 단순히 ‘재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권력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권력을 가진 자들은 그 권력을 이용하여 부를 쉽게 취할 수 있었다(참고, 눅 3:12-13; 19:8). 이러한 점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이다.³⁾

둘째, 누가복음 16:19-31의 사회-문화사적 측면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누가는 이 비유에 등장하는 주요 세 사람 중 아브라함 그리고 나사로에 대해서는 그 이름을 분명히 밝히지만, 자색 옷을 입은 부자에 대해서는 누구인지 말하고 있지 않다. 오늘날이야 복장의 자유화로 모양과 색깔에 관계 없이 입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입을 수 있으나, 예수 당시에는 옷의 색깔은 권력과 지위를 상징하는 것이다. ‘자색 옷’은 로마 황실이나 부속국의 최고 권력 계층에서만 입는 옷이었다. 현대식으로 말하면 이름을 밝히지 않고도 ‘하얀 집’ 또는 ‘푸른 기와집’에 사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가 누구인줄 금방 추측할 수 있다. 그들은 다름 아닌 권력을 가진 자들이다.

셋째, 이 비유가 갖고 있는 문학적 구조와 공간적 배경에 대한 것이다. 이 비유는 거지인 나사로와 부자로 자색 옷을 입은 자의 대립 구조로 짜여 있다.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한다면 부자가 돈을 숭배하기에, 죽은 다음에는 돈이 없어 고생하는 내용이 나와야 한다. 그러나 가난한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으로 가고, 자색 옷을 입은 부자는 음부로 간다. 죽은 다음의 보상은 돈이 아니라 공간으로 ‘아브라함의 품’과 ‘음부’이다. 음부에서 자색 옷을 입은 부자는 어떠한 권력도 행사하지 못한다.

3) 2000년 이후부터 등장하는 많은 억만장자들은 국가 권력과 결탁하여 석유, 부동산 그리고 채굴에 독점하여 부를 축적하였다. 이러한 경제 구조를 ‘정경유착형’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군부독재 시대에 이런 형태의 경제 구조를 가졌다. 오늘날 이런 형태의 경제 구조를 가진 대표적인 나라는 러시아로, 억만 장자의 80% 이상이 푸틴 대통령 측근이다. 이에 대해서는 Marin Katusa, “Vladimir Putin Is The New Global Shah Of Oil”, <http://onforb.es/YfHdii> (2012. 10. 29); Ruchir Sharma, “What The Billionaires List Tells Us About Asian Emerging Markets”, <http://onforb.es/10GwlLq> (2013. 3. 13).

2. 예수 당시 1세기 팔레스틴의 사회-정치-경제적 배경

예수 당시 고대 지중해와 팔레스틴의 사회 구조는 전형적인 피라미드 형 사회구조였다.⁴⁾ 상위 계층 일부가 정치와 토지 그리고 부를 독점하고, 그 나머지 대다수는 하층민으로 가난하게 살았다. 로마 사회에서 제일 부자이며 최대 지주는 당연히 권력의 최고 정점에 있는 황제였다. 그는 이탈리아와 해외에 있는 많은 땅을 전쟁으로 빼앗거나 상속을 받아 소유하였다.⁵⁾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남긴 유언의 기록에서 이 점이 분명히 드러난다.⁶⁾ 그는 첫 번째 상속인 티베리우스를 3분의 2의 상속인으로, 아내인 리비아를 3분의 1의 상속인으로 정하고, 로마 시민에게는 4천만 세스테르티우스(4세스테르티우스 = 1데나리온)를, 자신의 선거구에는 350만 세스테르티우스를, 친위대 병사들에게는 각각 1천 세스테르티우스를, 군단병들에게는 각각 300세스테르티우스를 유증하였다. 그리고 이를 즉시 현금으로 지불하라고 기록하였다. 그리고 그는 20년 동안 친구들의 유언에 따라 14억 세스테르티우스를 상속으로 받았다. 황제 다음으로 부를 소유한 자들은 원로원 계급으로 그들은 로마 전체 인구의 1%에 해당하는 2,000명 정도와 원로원의 십분의 일인 200명 미만의 기사 계급 사람들이다.⁷⁾ 부자라고 할 만한 이들의 수입은 가난한 사람의 수입의 700배 정도 많았고, 최고 부자의 경우에는 그 수입이 가난한 사람의 17,000배가 넘었다.⁸⁾

당시 사회 체계에서 상위층을 차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변수는 “권력(power), 특권(privilege), 명성(prestige)”인데, 권력이 가장 중요한 변수이며, 특권은 권력에 의해 좌우되며, 명성은 권력과 특권의 기능이다.⁹⁾ 그래서 얼마만큼의 권력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은 얼마만큼의 토지와 부를 소유하는 것과 직결된다.¹⁰⁾

이런 로마의 사회 구조는 예수 당시의 팔레스틴 사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유대의 상위 계층은 페르시아 통치기 이래로 대개 대제사장 가문 사

4) 예수 당시의 로마와 팔레스틴의 사회 계층에 대한 피라미드 도식은 Ekkehard W. Stegemann, Wolfgang Stegemann, 『초기 그리스도교의 사회사』, 손성현, 김판임 역 (서울: 동연, 2009), 130, 227을 보라.

5) Ekkehard W. Stegemann, 87.

6) Suetonius, 『풍속으로 본 12인의 로마황제』 vol. 2, 박광순 역 (서울: 풀빛미디어, 1998), 195-196.

7) 장신욱, “기부에 대한 누가의 관점”, 『로고스경영연구』 8 (2010), 257.

8) Ibid.

9) Ekkehard W. Stegemann, 115-116.

10) 제도화된 사회적 권력을 ‘지위(관직 혹은 역할)를 통한 권력’과 ‘재산(영향력)을 통한 권력’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이 둘은 상호 연결될 때가 많다(Ekkehard W. Stegemann, 114-115).

람들로 구성되었다. 하스몬 왕가에서는 통치권과 대제사장 권한을 가진 이 가문의 사람들이 최고의 부를 누렸다. 그러나 헤롯 왕이 유대 사회를 통치 하면서, 헤롯 가문의 사람들이 유대 사회의 토지와 부를 절대적으로 독점 하였다. 그는 로마 황실과 관계를 돈독히 하며 자신의 권력을 유지해 나갔다.¹¹⁾ 그는 절대적인 정치 권력을 가졌으나 에돔 족속으로 대제사장직에는 오르지 못하자, 자신의 정치적 정적인 하스몬 가문의 사람들에게 대제사장 직을 허락하지 않고 디아스포라 가문, 그 중에서도 바벨론 출신의 레위 가문의 사람들에게 많은 기회를 주었다.¹²⁾ 그리고 자신의 구미에 맞지 않으면 이유를 내세워 그들을 폐위시켰다. 헤롯 가문이 유대를 통치할 때에 대제사장의 임기 기간은 짧았다. 헤롯 왕이 집권(B. C. 37년)하여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기까지(A. D. 70년) 106년 동안 28명이 대제사장직에 올랐는데, 그 가운데 25명은 평범한 사제 가문의 출신이며,¹³⁾ 그들의 임기는 평균적으로 4년 정도 되었다. 그렇다고 대제사장 계층이 유대 사회에서 상위 계층에서 벗어났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들은 여전히 유대 사회에서 최상위 계층이었다. 하지만 헤롯 가문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다. 권력을 획득한 헤롯 가문의 사람들은 부와 재산을 확장해 나갔다. 이들은 많은 땅을 소유하였다. 헤롯 왕이 연간 거두어들이는 조세 수입은 최소한 1,000달란트(1달란트 = 6,000데나리온)에 달했으며, 그의 뒤를 이은 자손들의 공공 수입은 900달란트 이상(헤롯 안티파스 200, 빌립 100, 아르켈라오 600, 살로메 60달란트)이었으며, 아그립바 1세의 수입은 1,200달란트에 달했다¹⁴⁾(요세푸스, 『유대고대사』 17:317-323; 19:352 참조).

예수 당시의 유대 사회는 두 계층으로 구분된다. 상위 계층은 극소수로 왕 혹은 왕가와 제사장들이고, 하위 계층은 전체 백성(laos)들이다. 상위 계층의 사람들은 ‘힘 있고 부유한’ 자들이었으며, 백성들은 ‘약하고 가난한’ 자들이었다.¹⁵⁾ 상위 계층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군인이나 세리 그리고 성전의 관리인들도 백성들에게 권력을 사용할 수 있기에 상위 계층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이들도 자신들의 권력을 갖고 많은 부를 축적하였다(참고, 눅 3:12-14; 19:1-10). 부자들은 도시에서는 궁전과도 같은 집

11) 헤롯 가문은 로마 권력과 돈독한 관계를 맺었지만, 로마 고위 귀족의 눈에는 고작 촌스러운 지방 귀족에 불과하였고, 헤롯 가문에서 원로원 신분에 오른 사람은 없었다(Ekkehard W. Stegemann, 219 참조).

12) Ekkehard W. Stegemann, 218-219.

13) J. Jeremias, 『예수시대의 예루살렘』, 한국신학연구소 번역실 역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8), 248.

14) Ekkehard W. Stegemann, 189.

15) Ibid., 102.

(domus)을, 시골에서는 별장을 지어 놓고 사치스런 물품으로 장식하였다.¹⁶⁾ 이런 부자들의 사치스러운 주거 환경의 대표적인 예가 헤롯 가문의 궁전과도 같은 저택이었다. 이들은 친구나 이웃, 친척 등을 초대하여 만찬(banquet)을 즐겼고, 로마 제국 전역에서 최고급 요리들을 가져다가 상을 차렸다.¹⁷⁾

그러나 대다수의 백성들은 하위 계층에 속하였다. 여기에는 농촌에서는 농업 노동자나 소작인(갈릴리에서는 어부들), 낱품팔이, 채무 때문에 종이 된 사람, 노예가 있었고, 도시에서는 소규모로 장사하는 사업 경영자가 있었다.¹⁸⁾ 거지, 창녀, 목자, 노상강도는 하위 계층에서도 최저생계수준 이하의 삶을 사는 가장 밑바닥의 인생들이었다.¹⁹⁾ 소규모 자유농이나 어부도 가족 생계유지에 필요한 만큼은 벌지 못하였다.²⁰⁾ 이들 소농들이 땅을 빼앗기고 부채를 떠안게 된 상황은 로마 통치기의 특색으로, 자유로운 소농이 소작인으로, 다시 낱품팔이로, 심지어 거지로 추락하는 일은 특이한 경우가 아니었다.²¹⁾ 이것의 주된 원인은 지배자들의 토지 독식으로 인한 무거운 조세 부담 때문이었다.²²⁾ 결국 권력을 갖고 토지를 소유한 자들이 계속해서 더 많은 토지를 소유하고 부를 소유하였고, 일반 백성들은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회 구조가 되었다. 예수 당시의 사회 구조에서 부자는 단순히 경제적 측면에서의 부나 재산의 많고 적음을 말하는 용어가 아니라 권력, 힘, 신분, 사회적 특권과 같은 정치-경제적, 사회-문화적 위상을 나타내는 개념이다.²³⁾ 로마에서는 황제가 제일 부자이듯이, 팔레스틴에서도 헤롯 가문이 제일 부자였다. 이러한 점들은 역사의 전개 과정 속에서 언제나 그랬다. 민주화되었다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이다. 권력을 가진 자들은 그 권력을 이용해서 부를 쉽게 획득한다.

3. 예수 당시 1세기 팔레스틴의 사회-문화적 배경(복식 제도)

사회적 신분 질서에 따라 옷의 색깔을 구별하는 것은 동서양의 보편적인

16) Ibid., 139.

17) Ibid., 140.

18) Ibid., 223.

19) Ibid.

20) Ibid., 224.

21) Ibid., 190.

22) Ibid., 224.

23) 박홍순, “누가복음에 나타난 부유한 사람들의 재현”, 『신약논단』 14 (2007), 44.

문화인 것 같다. 우리나라에서도 일찍이 이 제도를 받아 들였다. 김부식이 기록한 『삼국사기』잡지(雜志) 제 2편에 다음과 같은 글이 있다.

“법흥왕(法興王) 때의 제령(制令)에는 태대각간(太大夫)에서 대아찬(大阿飡: 5 等級)까지는 자의(紫衣: 紫色 옷)요, 아찬(阿飡: 6 등급)에서 급찬(級飡: 9 등급)까지는 비의(緋衣: 붉은 옷)로 모두 아홀(牙笏)을 가졌다. 그리고 대내마(大奈麻: 10 등급) · 내마(奈麻: 11 등급)는 청의(靑衣: 푸른 옷)요, 대사(大舍: 12 등급)에서 선저지(先沮知: 一云 造位泥 17 등급)까지는 황의(黃衣: 노란색 옷)이었다.”(강조 - 글쓴이)²⁴⁾

신라는 ‘자색, 붉은 색, 청색 그리고 노란 색’을 사용하여 관직의 직급을 구분하였다. ‘자색’은 최고 권력층이 사용하는 색깔이었다. 신라는 당나라의 복식제도를 받아들였으니, 옷의 색깔로 관직을 구분하는 것은 신라 시대 앞서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최고 권력층이 사용하는 색깔을 일반 서민 사람들은 사용하지 못하였다.

“당서(唐書)에는 ‘백제에서는 왕이 큰 소매의 자색(紫色) 도포(外衣)와 푸른 비단바지를 입고, 오라관(烏羅冠: 검은 羅紗冠)에 금화(金花)로 장식하며, 흰 가죽띠와 검은 가죽신을 신는다. 관원(官員)은 그림 무늬의 붉은 비단으로 옷을 짓고, 은화(銀花)로 관(冠)을 장식하였으며, 서민(庶民)은 붉은빛이나 자색(紫色) 옷을 입지 못한다’ 하였다.”(강조 - 글쓴이)²⁵⁾

백제에서는 왕의 겉옷으로 ‘자색’이 사용되었고, 이 색깔을 일반 서민들은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신분 질서의 혼동을 초래하기 때문에 금하였을 것이다. 세종대왕도 이점을 고려해서 즉위 12년에 자색을 왕실의 의복이나 궁내에서만 사용하게 하였다.²⁶⁾ 고대 지중해 세계에서도 ‘자색’은 최고 통치자에게만 사용되었다.²⁷⁾ 이러한 점은 크세노폰(B. C. 430년경-354년경)의 저서 *Cyropaedia*(키루스의 교육) 8.3.13에 잘 기록되어 있다.

“그 다음에 드디어 전차를 탄 키루스가 모습을 드러냈다. 머리에는 높은 왕관을 쓰고, 흰색이 섞인 자주색 튜닉(이런 옷은 왕만이 입을 수 있

24) 김부식, 『삼국사기』下, 이병도 역 (서울: 을유문화사, 1996), 190.

25) Ibid., 195.

26) 이민주, 『용을 그리고 봉황을 수놓는다』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3), 20-21.

27) 서양 고대사에서 자색 옷과 관련한 정보는 Meyer Reinhold, *History of Purple as a Status Symbol in Antiquity* (Bruxelles: Latomus, 1970)를 참조.

다)과 진홍색으로 물들인 바지, **자주색** 망토를 입은 차림이었다. 그는 또한 왕관 밑에 머리띠를 둘렀고 그의 친척들도 같은 표시를 했는데 이 풍습은 오늘날에도 유지되고 있다”²⁸⁾(강조 - 글쓴이)

크세노폰이 기원전 5-4세기 사람이니 헬라 문화권에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자색’이 최고 권력층의 독점으로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복식 문화의 전통은 로마 시대에도 계속해서 적용되었다.²⁹⁾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로마 시민들에게만 토가를 착용토록 하였으며, 자색 장식선의 폭으로 신분 질서를 표시하였다. 원로원 의원들이 입는 ‘토가 프랙텍스타’(toga praetexta)는 자색의 폭이 7-8cm 정도 되었다. 그리고 장방형의 천으로 등과 어깨를 감싸는 외투로는 ‘팔루다멘툼’(paludamentum)이 있었는데, 황제의 것은 최고급품의 자색천을 사용하였다. 자색은 최고 특권층의 전유물로, 일반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었다. 네로 황제는 극장에서 금지된 자색 옷을 입고 있는 부인이 눈에 띄면, 황제 소속의 관리를 시켜 끌고 나간 뒤 옷뿐만 아니라 재산까지도 빼앗았다.³⁰⁾

유대 왕가에서는 헤롯 가문의 사람들이 자색 옷을 입었다.³¹⁾ 헤롯(B. C. 37-4년 유대 통치)이 왕에 오르기 전에 그는 갈릴리 지역을 다스렸는데, 산헤드린 공의회는 선고 없이 도적떼를 죽였다. 이 일로 산헤드린 법정에서 소환되자, 헤롯은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고자 자색 옷을 입고 군사를 대동하고 산헤드린 법정에서 출두하였다. 그만큼 자신이 권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그리고 그가 죽자 그의 시신은 자색 천으로 감싸졌다. 또한 헤롯이 도리스 부인에게서 낳은 아들 안티파터(Antipater)도 자색 옷을 입었고, 아그립바 1세도 자색 옷을 입고 티베리우스 황제가 호출한 법정에서 서기도 하였다. 예수 당시 세례 요한을 처형한 유대의 통치자 안티파스(Antipas)가 자색 옷을 입었다는 문헌적 기록은 없으나, 헤롯 왕이나 그의 자손들이 자색 옷을 입은 것으로 볼 때, 안티파스도 자색 옷을 입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 예수의 말씀도 이에 대해서 간접적인 증언을 하고 있다. 예수는 무리들에게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물으시면서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나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다”(눅 7:25; 마 11:8)고 말씀하셨다. 예수는 “화려하게 옷을 입고 사치하는 자”의 이름

28) Xenophon, 『키루스의 교육』, 이동수 역 (서울: 한길사, 2005), 368.

29) 로마 시대의 복식 제도에 관해서는 류호성, “자색 옷에 관한 역사적 고찰(눅 16:1-31)”, 『신학논단』 19 (2012), 13-16 참고.

30) Suetonius, 162.

31) 신구약성서와 요세푸스 문헌의 ‘자색 옷’에 관해서는 류호성, “자색 옷에 관한 역사적 고찰(눅 16:1-31)”, 18-29를 참조.

을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듣는 자들은 그가 누구인지 즉시 알아차릴 수 있었다. 그는 바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눅 7:28), 곧 세례 요한을 죽인 갈릴리와 베뢰아를 통치한 안티파스였다.

4. 누가복음 16:19-31의 문학적 배경

누가복음 16:19-31은 내용과 배경 따라 세 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다.³²⁾ 첫째는 19-21절까지의 자색 옷을 입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지상의 삶이고, 둘째는 22-23절까지로 이들의 사후의 삶이며, 셋째는 24-31까지의 자색 옷을 입은 부자의 요청과 이에 대한 아브라함의 거절이다. 구별된 단락들을 중심으로 자색 옷을 입은 부자는 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지 못하였는지를 그리고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께서 말씀하려고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고자 한다.³³⁾ 이야기의 3요소인 ‘인물, 사건, 배경’을 중심으로 내용을 살펴볼 것이다.

4.1. 누가복음 16:19-21

4.1.1. 등장 인물

이 이야기에서 등장하는 두 인물은 너무나 대조적이다. 한 사람은 이름은 없지만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은 부자이다. 다른 한 사람은 “하나님이 도우신다/도우셨다”³⁴⁾ 의미를 지닌 나사로로, 누더기 옷을 입고 있으며, 종기 투성이(『공동개정』)인 몸을 지닌 병든 거지이다. 통상적으로 부

32) Adolf Jülicher, *Die Gleichnisreden Jesu. Zwei Teile in Einem Band* (Darmstadt: Wissenschaftliche Buchgesellschaft, 1898), 634는 눅 16:19-26과 16:27-31을 서로 다른 이야기로 구분한다. 그의 해석은 오늘날까지 학자들에게 영향을 끼쳤고, 그 결과 세 영역에 걸쳐 이 비유가 연구되었다. 첫째는 문학적으로 어떻게 비유를 두 단락으로 구분할 것인가, 둘째는 구분된 두 단락에서 신학적 초점은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셋째는 첫 단락과 유사한 성서 외적인 자료는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다. 이런 역사적 논의에 대해서는 Ernest Van Eck, “When Patrons are Not Patrons: A Social-Scientific Reading of the Rich Man and Lazarus (Lk 16:19-26)”, *HTS* 65 (2009), 346-348 참조. 에크는 부자가 가난한 나사로에게 후견자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비록 그도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이 비유를 연구하였지만, 경제적 측면에 국한되었다.

33) 이 비유를 누가의 삶의 자리에서도 살펴보면, 권세자와 가진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생각할 수 있다. 누가복음 1:51-53절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

34) John Nolland, 『누가복음 9:21-18:34』 vol. 2, 김경진 역 (서울: 솔로몬, 2004), 686.

자의 이름을 밝히고 가난한 자의 이름을 익명으로 처리하지만, 여기서는 부자의 이름을 익명으로 하고 가난한 자의 이름을 밝힌 것은 다가올 역전의 이야기에 대한 복선이라 할 수 있다.³⁵⁾ 비록 부자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지만, 우리는 19-20절을 통해서 두 가지 사실을 추측해 낼 수 있다.

첫째, 그 부자가 자색 옷을 입은 것으로 보아 앞에서 이미 언급하였듯이, 그는 권력을 가진 통치자라는 것이다. 예수가 활동하고 있는 지역에서 자색 옷을 입을 수 있는 사람은 로마 총독이나 헤롯 가문의 사람들이다. 그러나 로마 총독으로 추정하기에는 전체 이야기 틀에서 맞지 않는다. 자색 옷을 입은 자가 아브라함을 “아버지”(πάτερ)라고 부르고(눅 16:24), 아브라함은 그를 “애야”(τέκνον)라고 부르는 것을(눅 16:25) 볼 때 이것은 아브라함과 혈연적 관계가 있음을 보여 준다.³⁶⁾ 그러기에 로마 총독은 부적합하다. 비록 헤롯 가문의 사람들이 순수 혈통의 유대인은 아니더라도, 이삭의 장자인 에서의 혈통이고(창 25:30), 그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증명하는 할례의 표를 갖고 있었다.³⁷⁾ 예수께서 이 비유를 말하는 어느 시점에 유대 땅을 통치하는 헤롯의 가문 사람은 갈릴리와 베뢰아 지역을 다스리는 안티파스와 북부 지역 이두래와 드라고닛을 다스리는 빌립(눅 3:1)이다. 여기서 빌립을 이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말하기는 힘들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통치 지역을 37년간 다스렸으나(B. C. 4년 - A. D. 34년), 사생활이나 통치하는 데 있어 조용하고 온순하였으며 가는 곳마다 억울한 사람들의 호소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재판관을 열었다(요세푸스, 『유대고대사』 18:106-108). 그렇다고 그가 나사로와 같이 혈벗고 굶주린 백성들 돌보기 위해 힘썼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도 결국은 (잔인한) 헤롯 가문의 혈통을 지닌 절대 군주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의 아내 살로메는 세례 요한을 죽음으로 이끈 장본인이다. 결국 이 비유에 등장하는 자색 옷을 입은 자는 세례 요한을 잔인하게 처형하고(마 14:1-12; 막 6:14-29),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눅 13:31-33) 갈릴리의 통치자 안티파스로 추정할 수 있다.

35) Ibid.

36) John Nolland, 『누가복음 9:21-18:34』 vol. 2, 689. 이에 대한 반대 견해는 I. H. Marshall, 『루가복음』 vol. II, 한국신학연구소 역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4), 356. “아무튼 여기서 혈족상 관계가 표명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37) 하스몬 왕가의 요한 힐카누스(B. C. 135-104년)가 이두메인을 굴복 시키고 할례를 시켰다. 참조, 요세푸스, 『유대고대사』 13:257-258. (이하 논의 되는 요세푸스의 『유대고대사』나 『유대전쟁사』에 관한 모든 자료는 ‘BibleWorks 7’의 분류를 따랐다. 이 분류에 따른 우리말 번역본은, 요세푸스, 『요세푸스』 I-VII [서울: 달산출판사, 1992]이다. 필자도 이를 많이 참조하였음을 밝힌다.)

둘째, 나사로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 추정할 수 있다. 그는 이 이야기에서 부차적인 인물로, 수동적으로 그려지고 있는 듯하다. 그래서 혹자는 나сар가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갈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비록 나사로의 의로운 행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보도되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그의 이름을 통해서 그가 어떠한 사람인지 알 수 있다. 나сар는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구를 도우시는가? 하나님은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신다”(시 146:8-9). 곧 하나님이 의인을 도우시고(시 11:5; 잠 12:21-22) 가난한 자를 도우시는 것(시 10:12; 14:6; 렘 20:13; 암 5:12-16)이 그분의 속성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난한 나사로를 도우시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의 불의를 ‘의롭다’고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의 송사를 공정하게 재판하신다(출 23:3-6). 이어지는 이야기에서 나сар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것으로 보아서 우리는 그가 ‘의인’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³⁸⁾ 결국은 그가 지상에서 의로운 행동을 했다고 역추적 할 수 있다. 성경이 이에 대해서 아무 것도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그의 등장 자체 속에 이미 이것이 감추어져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나сар는 권력자에게 모든 것들을 수탈당하고 고난받는 의로운 자를 상징화 한 것이다. 이런 고통 속에서 나сар가 할 수 있는 것은 참고 견디는 것이다. 남들의 눈에는 이런 것들이 수동적인 행동으로 보였을 것이다. 이것은 마치 욕이 고난을 받는 과정 속에서 온 몸에 종기가 있었을 때에 참고 견디는 것과 유사하다(참고, 욕 2:7-8). 고난 속에 인내할 때에 욕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았다(약 5:11). 이런 맥락에서 나сар의 행동을 파악하면 나сар의 수동적인 행위는 결코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의롭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누리는 적극적인 행동이라고 파악할 수 있다. 한편, 나сар와 대조적으로 자색 옷을 입은 부자는 ‘악한 자’라고 우리는 미리 짐작할 수 있다.

4.1.2. 사건

자색 옷을 입은 부자는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 그가 즐긴 것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잔치’인지 아니면 ‘자신의 권위를 상징하는 자색

38) 누가복음 16:19-31의 이야기와 비슷한 이야기가 예수 이전에 애굽 그리고 유대에도 있었다. 그 골자는 의로운 자는 죽어서 좋은 대우를 받는다는 것이다(J. Jeremias, 『예수의 비유』, 허혁 역 [왜관: 분도출판사, 1988], 177 참조).

옷’인지,³⁹⁾ 여하튼 그는 자기만족에 탐닉하는 인물이다. 반면 가난한 나사로는 누군가에 의해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졌는데”(ἐβέβλητο - βάλλω의 과거 완료, 수동태), 이것은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손님들이 손을 닦을 때 사용하는 빵조각)⁴⁰⁾ 배를 채우라고 그렇게 한 것이다. 병들고 가난한 자들이 당시 사회에서 생계를 유지하는 하나의 방법이였다(참고, 행 3:2-3). 그런데 불결한 ‘개들’(οἱ κύνεις)이 와서 나사로의 병든 부분을 핥았다. 이것은 나사로를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었으며,⁴¹⁾ 개들이 빵을 먹음으로 나사로는 늘 배고픔에 시달렸다.⁴²⁾

한편, 복수로 사용된 ‘개들’(οἱ κύνεις)은⁴³⁾ 나사로를 괴롭힌 실제적으로 불결한 동물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나사로, 곧 가난한 백성들을 핥박하고 억압하는 통치자의 잔혹성을 상징화 한 것이다. 이 사야는 탐욕스러운 이스라엘 백성의 통치자들을 ‘개들’이라 부르며, 이들은 “병어리 개들(κύνεις)이라 짓지 못하며 ... 이 개들(οἱ κύνεις)은 탐욕이 심하여 죽한 줄을 알지 못한다”(사 56:10-11)하고 비난한다. 그리고 자색 옷을 입은 통치자는 단수인데, 복수인 ‘개들’이 사용되었기에 서로 일치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으나, 오히려 자색 옷을 입은 그 통치자의 잔혹성을 더욱 드러내기 위해서 복수인 ‘개들’로 사용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4.1.3. 배경⁴⁴⁾

이 사건이 일어난 공간적 배경은 자색 옷을 입은 부자의 “대문 앞”(πρὸς τὸν πυλῶνα)으로, 여기서의 문은 특별히 커다란 출입문을 의미한다(großes Eingangstor).⁴⁵⁾ 헬라이어 ‘πυλῶν’은 신약성서에서 18번 사용되었는데 대체사

39) 이에 대해서는 류호성,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대한 소고”, 『신약논단』 18 (2011), 413-441 참조.

40) J. Jeremias, 『예수의 비유』, 178.

41) 피부병이 있는 곳을 개들이 핥으면 진물이 더욱 번져 병을 악화시키고, 파리를 더욱 들끓게 하여 더 가렵게 한다. 이에 대한 이야기는 요세푸스, 『유대고대사』 18:174-176을 참고.

42) J. Jeremias, 『예수의 비유』, 178. “부정형과 함께 쓰인 ἐπιθυμῆιν은 누가의 경우 언제나 채워지지 않은 욕망을 표현한다”.

43) John Nolland, 『누가복음 9:21-18:34』 vol. 2, 687에서 이 ‘개들’은 돌아다니는 야생의 개들이 아니라, 부자 집에 속한 개들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Darrell Bock, 『누가복음』, 조호진 역, NIV 적용 주석 시리즈 (서울: 솔로몬, 2010), 569, 각주 3.

44) 이 비유를 ‘공간적’ 측면에서 해석한 것에 대해서는 Hortensius Florimond, “Exegeting ‘Places’: Territoriality and Hospitality in Luke 16:19-31”, 『성경원문연구』 21 (2007), 149-165 참조.

45) W. Gemoll, *Griechisch-Deutsches Schul- und Handwörterbuch* (München: Verlag Holder - Pichler - Tempsky, 1997), 659.

장 저택의 문(마 26:71), 제우스 신전을 출입하는 문(행 14:13), 그리고 요한 계시록 21-22장에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성문으로 사용되었다(계 21:12, 15, 21; 22:14). 나사로가 이 대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지만, 이 집을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은 가련한 나사로를 보았을 것이다. 여기에는 자색 옷을 입은 부자도 포함되었을 것이다. 그도 이 집을 드나들었을 것이다.⁴⁶⁾ 나사로가 있는 곳에는 그의 권력과 부가 영향력을 미쳐, 나사로를 돌볼 수 있는 공간이었지만, 그는 나사로를 외면하였다. 그래서 나사로가 자리잡고 있는 대문 앞은, 나면서부터 못 걷는 자가 있는 성전 미문 앞과는 너무나 대조적이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들을 보자 금과 은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운다(행 3:1-10). 특히 권력자에게는 자신의 통치 공간에서 가난하고 의로운 자들을 돌보아야 할 책임이 있다. 그래야 그의 통치권이 영원히 견고해 진다(참고, 잠 29:14). 그러나 이 비유에 등장하는 자색 옷을 입은 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4.2. 누가복음 16:22-23

4.2.1. 등장 인물

여기서 등장하는 인물은 두 부류이다. 한 편은 죽은 나사로와 그를 받들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품으로 인도하는 ‘천사’이다. 천사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는 하나님이 창조한 영으로 인간사에 개입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의 백성을 돕는 역할을 하며 또한 백성의 대적인 경우는 격파시키기도 한다.⁴⁷⁾ 또한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는 역할도 한다(마 13:49). 천사가 죽은 나사로를 도왔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인이었음을 의미한다. 다른 한편으로 사람들의 손에 의해 장사된 부자이다. 천사가 그를 돕지 않은 것으로 보아,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인물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가 ‘음부(ἐν τῷ ᾄδῳ)’에 들어 간 것은, 그가 악하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증거다. 음부는 악한 자들이 가는 ‘지옥’이지 “육체

46) 정중성, “예수님의 비유(눅 15-16장)와 비호친 독자(Bakhtin Reader)”, 『누가복음 새로 읽기: 문학적 읽기의 이론과 실제』(서울: 한울 출판사, 2001), 177-178에서 부자가 대문을 넘어가서 나사로를 사귀지 못하였다고 말한다. 그런데 문을 넘어 갔지만 그를 외면하였다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 이 대문과 26절의 ‘큰 구렁텅이’가 서로 역설적 대조를 이룬다. 큰 구렁텅이는 넘나들 수 없으니, 대문은 넘나들 수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이 이야기의 구조는 부자가 음부에 간 것을 더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47) M. J. Davidson, “사자들”, J. B. Green, S. Mcknight, I. H. Marshall, eds., 요단출판사 번역위원회 역, 『예수 복음서 사전』(서울: 요단 출판사, 2003), 504.

를 상실한 영·혼의 중간기 대기상태”가⁴⁸⁾ 아니다. 음부를 중간기 상태라고 이해하는 것은 첫째, 26절 전체를 바르게 읽지 않은 것이다. 둘째는 로마 가톨릭이 저지른 면죄부에 대해 합법성의 길을 열어 줄 가능성이 있다.

4.2.2. 사건과 배경

자색 옷을 입은 부자와 나사로가 모두 죽었다. 그런데 그들의 운명이 살아생전과 완전히 뒤바뀌었다.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자색 옷을 입은 부자는 음부에 가서 고통을 받는다.⁴⁹⁾ 이것은 시편 73편을 연상케 한다. 악한 자가 현실에서 재앙을 당하지 않고 형통하고 죽을 때에 고통이 없어 보이지만, 결국은 주께서 그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고 파멸에 던지신다(시 73:18-19). 이와 같은 맥락에서 부자의 대문 앞에 놓여 고통 받았던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으로 가고, 큰 저택에서 자기 탐닉에 몰두했던 부자는 음부로 간다. 죽음 이후로 그들의 삶의 공간적인 배경은 서로 뒤바뀐다.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이 비유를 경제적 관점에서만 해석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 경제적으로 가난한 나사로에게 사후에 주어진 보상이 배불리 먹는 것이고, 그리고 살아생전에 좋은 것으로 배를 채운 자색 옷을 입은 부자에게는 사후에 굶주림이 주어졌다는 구조로 이야기가 짜였다면 그 타당성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야기의 공간은 경제적 문제를 포괄하는 “아브라함의 품”과 “음부”이다.

4.3. 누가복음 16:24-31

4.3.1. 사건과 배경

음부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부자는 아브라함을 불러 두 가지를 요청한다. 하나는 자신이 음부에서 갈증으로 고생을 하고 있으니, 나사로를 시켜서 갈증을 해결해 달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아브라함은 단호하게 거절한다. 그 이유는 자색 옷을 입은 부자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tau\acute{\alpha} \acute{\alpha}\gamma\alpha\theta\alpha$) 받았

48) 성중현, “인간의 본질과 죽음 그리고 영혼과 육체의 분리: 신약성서의 개인적·내세적 종말론의 논쟁점을 중심으로”, 『장신논단』 44 (2012), 59-86 참조. 이에 대한 반대의 견해는 김명용, “부활의 시기와 죽은 자의 중간기에 대한 연구”, 『장신논단』 13 (1997), 136-161 참조.

49) 자색 옷을 입은 부자의 수의로 ‘자색 옷’이 사용되었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요세푸스, 『유대고대사』, 17:197-198 참조.

지만, 나사로는 고난을(τὰ κακά)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에 대한 보상으로 사후의 세계인 ‘이곳에서’(ὧδε) 나사로는 ‘위로를 받지만’(παρακαλείται - 현재, 수동태), 자색 옷을 입은 부자는 ‘괴로움’(ὀδυνάσαι - 현재, 수동태)을 받는다. 나사로의 ‘고난’과 ‘위로’가 자색 옷을 입은 부자의 ‘좋은 것’과 ‘괴로움’과 대조를 이룬다. 나사로가 받는 ‘위로’는 아브라함[하나님이]이 의로운 자에게 주시는 ‘참된 구원’을 의미하며,⁵⁰⁾ 반면 부자가 받는 ‘괴로움’은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을 모두 포함하지만,⁵¹⁾ 24절에서 부자가 갈증을 느끼는 것으로 보아서는 ‘육체적 고통’에 더 강조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나사로가 생전에 자색 옷을 입은 자로부터 받은 고난이 육체적 고통이었음을 추측하게 한다.

그리고 25절에서 역전의 상황이 일어나는 시간과 장소가 “이제 여기서”(νῦν δὲ ὧδε), 곧 ‘사후의 세계’라는 것이다. 이 세계에서 위로와 고난을 받는 것은 지상의 삶과 연관성이 있지만, 이 세계를 통치할 수 있는 절대적인 권한은 오직 (하나님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이스라엘의 영적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있다(참고, 눅 3:8). 자색 옷을 입은 자는 살아생전에 가졌던 자신의 권력을 사후 세계에서 계속해서 행사하고 싶어 하였으나,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 더욱 분명한 것은 나사로가 있는 아브라함의 품과 자색 옷을 입은 자가 있는 음부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χάσμα μέγα)가 있어서 서로 소통할 수 없다. 이것을 볼 때 이 음부가 최후 심판이 있기에 앞서 잠정적으로 거하는 장소라고 말하기는 힘들다.⁵²⁾ 부자의 대문과 큰 구렁텅이는 서로 대조를 이룬다. 부자의 대문은 사람들이 서로 왕래할 수 있는 곳이지만, 구렁텅이는 전혀 왕래가 불가능한 곳이다.

둘째는 자신이 음부에서 고통을 받고 있으니, 나사로를 자신의 아버지 집에 보내 “다섯 형제들”(πέντε ἀδελφούς)이,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한다. 이에 대해서도 아브라함은 단호하게 거절한다.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은 “율법과 선지자”라는 누가의 또 다른 표현으로(눅 16:16; 24:44),⁵³⁾

50) G. Kittel, G. Friedrich ed., “παρακαλέω”, 요단출판사 번역위원회 역, 『신약성서 신학사전』 (서울: 요단 출판사, 1985), 875.

51) Ibid., “ὀδυνάομαι”, 755.

52) I. H. Marshall, 『누가복음』 vol. II, 355에서는 이에 대해 반대한다.

53) 누가가 16:16을 통해서 구약의 시대, 예수의 시대 그리고 교회의 시대로 구분하고 ‘세례 요한’을 구약 시대에 속한 인물로 본다는 이전의 견해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 누가는 율법과 선지자들과의 연관성 속에서 예수를 그리고 그의 부활을 이해하고 있다(눅 24:27, 44). 누가복음 16:16에서 ‘세례 요한’을 ‘율법과 선지자’와 더불어 이해한 것은 구약성경의 말씀에 대한 권위를 강조하기 위함이고, 이것은 누가복음 16:16-31을 구약성경의 관점에서 그리고 세례 요한과 연관해서 해석되어야 한다는 누가의 의도이다.

곧 구약성경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간다고 해도 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들이 듣지 않는 성경의 말씀을 ‘부’라는 경제적인 측면으로만 제한해서는 안 된다.⁵⁴⁾ 하나님이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가르치신 모든 가르침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물론 ‘부’가 ‘권력’을 상징하기에 경제적인 것들을 정치적인 측면과 연관해서 이해해도 무관하다. 그리고 모세와 선지자들은 통치자들에 대해서도 백성을 보살필 것을 엄중하게 훈계하고 있다(참고, 신 17:14-20; 28:36-46; 미 3:1-12). 아브라함은 부자의 요청을 아주 강하게 다시 거절한다.

4.3.2. 등장 인물

여기서는 자색 옷을 입은 부자와 그의 다섯 형제들 그리고 아브라함이 등장한다. 자색 옷을 입은 부자에 대해서는 앞서 살펴보았기에 먼저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리고 자색 옷을 입은 자의 다섯 형제들에 대해서 살펴보자.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로(창 15:5),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다(롬 4:16). 그는 소돔의 이야기에서 보여주는 것처럼(창 18:16-33) 심판과 멸망보다는 축복과 구원의 이미지로 주로 그려지고 있고,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고자 노력한다(참고, 행 3:25). 그런데 이 부분에서 그려지고 있는 아브라함은 자색 옷을 입은 자의 요청에는 너무나 단호하게 거절한다. 첫 번째 그가 음부의 불꽃 가운데에서 괴로워하기에 자신의 혀를 시원하게 해달라는 요청에 대한 거절은 사후 세계의 심판이라고 생각하면,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런데 그가 현 세상에 살고 있는 다섯 형제가 고통의 음부 세계에 오지 않기 위해서 나사로를 보내 달라고 하는 요청은, 어느 정도 들어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앞서 언급하였듯이 심판보다는 구원을 위해 노력하는 인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색 옷을 입은 자의 요청을 단호히 거절하며, 그들을 심판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보이고 있다. 그들은 어떤 상황이라도 회개할 기미를 보이지 않을 것임을 확신하고 있다(눅 16:31). 그리고 28절의 자색 옷을 입은 자의 요청, 곧 “그들로 이 고통 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라는 문장 속에는 이미 그들이 음부에 올 것임을 전제하고 있다. 아브라함은 자색 옷을 입고 있는 자를 심판하였고 그리고 그의 다섯 형제들도 심판하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갖고 있다.

이 다섯 형제들은 누구인가? 27절에서 자색 옷을 입은 자는 “나사로를 내

54) 외견상 경제적인 측면에서 살펴본 성경 구절은 Darrell Bock, 『누가복음』, 570 참조.

아버지의 집”으로 보내 달라고 하면서, 28절에서 자신의 다섯 형제(ἕχω γὰρ πέντε ἀδελφούς)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여기서 아버지는 이미 죽었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아버지가 살아 계셨더라면, 자색 옷을 입은 부자는 자신의 형제들보다 아버지를 먼저 언급하였을 것이다.⁵⁵⁾ 이들 다섯 형제가 아버지의 유업을 나누지 않기로 했다는 것보다,⁵⁶⁾ 나누고 서로 분가해서 살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그리고 숫자 다섯을 너무 문자적으로 강조할 필요는 없고 중요한 것은 이들이 혈족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마샬(I. H. Marshall)은 이들이 “헤로데 가문을 가리키는 수라는 주장은 잘못되었다”⁵⁷⁾고 말한다. 하지만 이들 가문을 뜻하는 것이다. 자색 옷을 입은 자의 요청을 단호하게 거절한 아브라함의 태도에서 이를 찾아 볼 수 있다. 곧 그들을 심판하겠다는 아브라함의 굳은 의지는, 현 세상에서 권력을 지니고 있는 헤롯 가문 전체를 심판하겠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통치하라고 주신 권력을 자신의 탐닉에만 사용하여, 현실에 고통 받고 있는 자들을 외면하고 또한 의인들을(예를 들어, 세례 요한) 괴롭히는 그 가문의 사람들을 심판하겠다는 것이다.⁵⁸⁾

5. 결론

예수 당시 고대 지중해 세계와 팔레스틴 사회에서 ‘부자’는 단순히 경제

55) John Nolland, 『누가복음 9:21-18:34』 vol. 2, 690.

56) Ibid. Nolland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부자의 집이 그의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던 집이었을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다섯 형제가 여전히 아버지의 집에 살고 있다면, 왜 아버지는 이 요청 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인가? 아버지는 이미 죽었고, 다섯 형제는 그들의 유업의 몫을 나누지 않기로 했다고 보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다.” 아버지는 죽었다고 가정하면서, 유업의 몫을 나누지 않았다는 것은 당시의 상황과 맞지 않는다. 아버지는 죽으면서 유언서를 작성하였을 것이고, 그들은 자신들의 몫을 챙겨 분가했을 것이다.

57) I. H. Marshall, 『루가복음』 vol. II, 358.

58) 참고 J. Jeremias, 『예수의 비유』, 180. “다시 말해 예수는 부와 가난의 문제에 대해 어떤 태도를 표명하려는 것이 아니고 사후의 생에 관해 가르치려는 것도 아니다. 그가 이 비유를 말한 것은 이 부자 및 그 형제들과 같은 사람들에게 절박한 운명을 경고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가난한 나사로는 단지 부수적 인물이고 대조적인 역할뿐이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6형제이다. 그러므로 이 비유를 ... ‘육형제의 비유’라고 해야 할 것이다”. 예레미아스가 ‘부와 가난’의 문제를 벗어나서 육형제의 운명에 대한 경고라고 해석한 것은 타당하다. 그러나 나사로가 부수적 인물로 등장한다고 해서 그에 대한 과소하게 평가하거나 또는 사후 세계에 대해서 의미를 축소하는 것은, 이 비유가 갖고 있는 많은 의미들을 제한시키는 것이다. 사람의 눈으로 의인과 죄인을 구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리 힘든 것이 아니다. 삶은 복잡한 것 같으나 때로는 아주 단순하다.

적 측면에서 돈이 많다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들은 권력을 통해서 부를 쉽게 형성하였다. 그리고 누가복음 16:19-31에서 등장하는 부자가 당시 사회에서 최고의 권력층만 사용할 수 있는 ‘자색’ 옷을 입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비유는 사회-정치-문화적 관점에서 해석됨을 요청받고 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을 자기 탐닉에만 몰두 하였고 또한 가난하고 의로운 자들을 박해한 자였다. 이런 그의 행동에 대한 보상은 사후에 음부로 가는 것이다. 그리고 그 악한 통치자 밑에서 고난 받았던 의인인 나사로는 사후에 아브라함의 품에 간다. 악한 통치자는 사후의 세계에서도 자신의 권력을 사용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하다. 그의 어떠한 요청도 허락되지 않는다. 자신의 형제들이 음부 세계에 오지 않길 바라고, 나사로를 지상으로 보내 줄 것을 열국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요청하지만, 거부당한다. 그들도 권력을 가진 오만한 자들이기에 모세와 예언자들의 가르침에 순종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도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력을 이기적인 욕망과 의인을 억압하는 데 사용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도 자색 옷을 입은 자처럼 음부에 오는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주제어>(Keywords)

자색 옷을 입은 부자, 나사로, 개들, 아브라함 품, 음부, 큰 구렁텅이, 모세와 선지자.

A Rich Man Who Was Dressed in Purple, Lazarus, Dogs, Abraham's Bosom, Hades, A Great Gulf, Moses and the Prophets.

(투고 일자: 2015년 7월 29일, 심사 일자: 2015년 8월 28일, 게재 확정 일자: 2015년 9월 14일)

<참고문헌>(References)

- 강신욱, “기부에 대한 누가의 관점”, 『로고스경영연구』 8 (2010), 253-266.
- 김부식, 『삼국사기』 下, 이병도 역, 서울: 을유문화사, 1996.
- 김명용, “부활의 시기와 죽은 자의 중간기에 대한 연구”, 『장신논단』 13 (1997), 136-161.
- 김창락, 『귀로 보는 비유의 세계』,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7.
- 류호성,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대한 소고”, 『신약논단』 18 (2011), 413-441.
- 류호성, “자색 옷에 관한 역사적 고찰(눅 16:1-31)”, 『신약논단』 19 (2012), 1-36.
- 박홍순, “누가복음에 나타난 부유한 사람들의 재현”, 『신약논단』 14 (2007), 39-64.
- 성종현, “인간의 본질과 죽음 그리고 영혼과 육체의 분리: 신약성서의 개인적·내세적 종말론의 논쟁점을 중심으로”, 『장신논단』 44 (2012), 59-86.
- 오덕호, 『하나님이나 돈이나? - 누가복음 16장의 문학·역사비평적 연구』,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8.
- 이민주, 『용을 그리고 봉황을 수놓다』,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3.
- 정종성, “예수님의 비유(눅 15-16장)와 비호친 독자(Bakhtin Reader)”, 『누가복음 새로 읽기: 문학적 읽기의 이론과 실제』, 서울: 한들 출판사, 2001.
- Bock, Darrell, 『누가복음』, 조호진 역, NIV 적용주석 시리즈, 서울: 솔로몬, 2010.
- Davidson, M. J., “사자들”, J. B. Green, S. Mcknight, I. H. Marshall, eds., 요단출판사 번역위원회 역, 『예수 복음서 사전』, 서울: 요단 출판사, 2003.
- Donahue, John R., 『어떻게 비유를 해석할 것인가?』, 박노식 역, 용인: 강남대학교 출판부, 2007, 234-244.
- Florimond, Hortensius “Exegeting ‘Places’: Territoriality and Hospitality in Luke 16:19-31”, 『성경원문연구』 21 (2007), 149-165.
- Jeremias, J., 『예수시대의 예루살렘』, 한국신학연구소 번역실 역,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8.
- Jeremias, J., 『예수의 비유』, 허혁 역, 왜관: 분도출판사, 1988.
- Kittel, G., Friedrich, G., eds., “ὀδυναίωμαι”, “παρακαλέω”, 요단출판사 번역위원회 역, 『신약성서 신학사전』, 서울: 요단 출판사, 1985.
- Marshall, I. H., 『루가복음』 vol. II, 한국신학연구소 역,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4.
- Nolland, John, 『누가복음 9:21-18:34』 vol. 2, 김경진 역, 서울: 솔로몬, 2004.
- Stegemann, Ekkehard W., Stegemann, Wolfgang, 『초기 그리스도교의 사회사』, 손성현, 김판임 역, 서울: 동연, 2009.
- Suetonius, 『풍속으로 본 12인의 로마황제』 vol. 2, 박광순 역, 서울: 풀빛미디어, 1998.

Theißen, Gerd, 『복음서의 교회정치학』, 류호성 공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2.
Xenophon, 『키루스의 교육』, 이동수 역, 서울: 한길사, 2005.

Eck, Ernest Van, “When Patrons are Not Patrons: A Social-Scientific Reading of the Rich Man and Lazarus (Lk 16:19-26)”, *HTS* 65 (2009), 346-356.

Gemoll, W., *Griechisch-Deutsches Schul- und Handwörterbuch*, München: Verlag Holder - Pichler - Tempsky, 1997.

Jülicher, Adolf, *Die Gleichnisreden Jesu. Zwei Teile in Einem Band*, Darmstadt: Wissenschaftliche Buchgesellschaft, 1898.

Katusa, Marin, “Vladmir Putin Is The New Global Shah Of Oil”, <http://onforb.es/YfHdii> (2012. 10. 29).

Reinhold, Meyer, *History of Purple as a Status Symbol in Antiquity*, Bruxelles: Latomus, 1970.

Sharma, Ruchir, “What The Billionaries List Tells Us About Asian Emerging Markets”, <http://onforb.es/10GwlLq> (2013. 3. 13).

<Abstract>

**Why Was the Rich Man Dressed in Purple
Unable to Go into Abraham's Bosom?:
A Socio-Political-Economic-Cultural Interpretation
on Luke 16:19-31**

Ho-Seung Ryu
(Seoul Jangshin University)

In Luke 16:19-31, a rich man who was clothed in purple and fine linen died, but after his death, he was not carried to Abraham's bosom but into the Hades. In economic perspective, most scholars interpret that the rich man liked his wealth too much that he didn't take care of the poor man, Lazarus. This explanation has validity to a certain extent.

First, in the parable in Luke 16:1-13, the dishonest manager is related to the problem of wealth, and verse 14 also mentions the Pharisees who were lovers of money. It is therefore possible to read the whole chapter 16 with an economic point of view.

Second, Luke had to integrate the rich and the poor in their community, so he presented the eschatological ethics, i.e. if the rich does not use his wealth for the poor, he must go to the Hades.

Such understanding is however narrow. It does not consider the following requirements. First, the rich in the ancient Mediterranean-Palestinian society at the time of Jesus not only had a lot of money from today's perspective, but were also at the top of the class structure, enjoying political power. Ancient societies were more closely associated with socio-political-economic structure than the ones of today.

Second, it did not consider the socio-cultural history aspect. Today, one can dress himself or herself freely without being conscious of his or her social class all the time. We can freely choose the shape and color of our dress. However, that was not the case in ancient societies. The color of the dress represents one's social status in ancient societies. Purple clothes were only for those who belonged to the top of class structure, namely kings and emperors.

Third, it did not take into account the spatial structure and literary background. This parable is woven into the confrontation structure of two persons, the rich and the poor. If this parable can be understood from an economic point of view, the rich would be poor after the death, and the poor would be rich. But it is found that the rich went to the Hades, while the poor, Lazarus, went into the Abraham's bosom. The compensation is not wealth but space: Abraham's bosom and Hades. In Hades, the rich has no power whereas in Abraham's bosom, Lazarus is very comfortable.

This is why the parable of Luke 16:19-31 should be interpreted from socio-political-cultural perspective. The rich was a political leader who had immense power. He was either Herodes Antipas who was a tetrarch of Galilee and Berea, or the one who executed John the baptist. God gave Antipas the power to take care of the poor and the righteous, but he became immersed in self-indulgence. He also persecuted the righteous. So he was sent into the Hades after his death. On the contrast, the poor Lazarus, symbolizing of the righteous one suffering under Antipas, was sent to Abraham's bosom, which was the due blessing he deserved.